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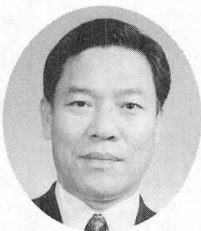


미 국산 옥수수 값이 톤당 2백 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한다. 국내 사료 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동물 약품 가격 역시 만만치 않아서 양돈 농가의 질병 방역비 부담도 커 가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발생된 질병의 오진이나 방치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예가 비일비재하니 더욱 문제다.

정부는 돼지 전염병 박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란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의 질병을 진단하는 대학의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우선 돼지 콜레라와 오제스키병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써볼까 한다.

—수의전문가 입장—

정부의 돼지 전염병 박멸 대책에 바란다



박남용 교수
(전남대 수의과대학)

1. 미국 및 일본의 현황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에서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사라졌다. 1978년에 미국 전역에 콜레라가 박멸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무서운 바이러스는 미국의 한 외로운 섬에 설치된 특수 연구소에서나 접해 볼 수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1992년 이후 발생 보고가 없는 것 같고 3단계 박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40년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돼지 질병 중 가장 무서운 이 질병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자 1961년 드디어 의회에서 돼지 콜레라 박멸 대책을 제정 통과했다.

그러나 오제스키병 경우는 다르다. 미국도 일본도 아직 근절은 안되었다. 한편 영국이나 덴마크는 1983년에 박멸 대책을 수립해서 90, 92년에 각각 근절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미국은 50개주의 절반 정도인 24개 주에서는 근절이 된 것 같고, 일본도 1981년 이 질병이 최초 확인되었으나 각 현의 방역 기관이

박멸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2~3개 현에서 극소수 농장에 서만 확인되고 있다한다.

2. 국내 상황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몇몇 양돈 선진국에서 두 질병의 성공적인 박멸 대책 과정을 예로 들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처지는 어떤 실정인가! 관계 법규가 미비해서 콜레라나 오제스키병이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던 말인가? 대책이 없어서인가? 한국 농어민 신문 3월 21일자를 보면 경북 칠곡군에서만도 콜레라 때문에 돼지 785두가 폐사되었는가 하면 어디에서나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또한 축산신문 3월 21일자에서는 수의 과학 연구소에서 돼지 콜레라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개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백신이 없어서 계속 말썽인가! 우리 나라에서 콜레라는 1947년 처음으로 서울 근교서 확인된 후 전

국 각지에서 돼지 연령이나 계절과는 상관없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다. 약 10여년 전에 백신 검정 잘못으로 엉터리 콜레라 백신이 시장에 유통되어 큰 파문을 일으킨 후에는 지금 콜레라 백신의 효과는 다른 어떤 백신보다도 우수해서 최소한 백신을 제대로 하는 농장에서는 그 발생이란 있을 수가 없는 데도 말이다.

최근 돼지 오제스키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업계, 학계 및 방역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방역 전담기구를 발족시켜 장비와 예산을 지원 받아 근절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2002년을 무질병의 해로 농림수산부는 가축 청정화를 선포한다고 하니(축산신문 4월 5일자)앞으로 5년만 있으면 그런 꿈같은 해가 도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내 수의 축산 업계에서 가축의 질병 발생 현황을 조금 파악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니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가축 질병의 효율적 퇴치를 위해 지역책임방역에서 방역 협회니 하는 것도 절실할지 모르겠으나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양축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방역 담당자 여러분이 각성해야 할 일은 우선 우리 모두가 기존 사고방식을 과감히 탈피

해서 새로운 사고로 의식 전환을 한 후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정부가 가축 질병의 방역 대책 일환으로써 시급히 추진해야 할 큰 일 세가지를 들어보겠다.

3. 세가지 대책

첫째, 수의과 대학의 수업 연한을 6년제로 연장하는 일이다.

수의사를 배출하는 기관이 수의과대학이다. 수의사의 역할은, 너무나 다양하게 그 폭이 넓다. 동물의 질병을 치료해서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래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전선에서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수의사이다. 도축검사 등 식품위생에 절대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의 예방 업무의 공중 보건 분야의 한 중심에 있는 직종이 수의사이다. 각종 질병의 역학 조사나 여러 분야의 연구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수의사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발휘해야 할 수의사가 수업 시간의 절대 부족 상태에서 배출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필자는 병리학 교수이다. 많은 질병의 증례를 접해 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청각 재료라도 학생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강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소장하

고 있는 교육 자료의 1/3도 못 보여주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양 과정을 포함해서 4년제 의학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데 이는 실력 있는 수의사를 길러 낼 수 없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비난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각 동물별로 깊이 있는 교육과 충실하고도 다양한 실습 강의를 전개하기란 수업 시간의 부족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이다.

둘째,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가축 위생 업무 기관을 점차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 기관은 과거에 가축 위생 시험소라는 동일된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관장하는 직할 사업소로 설치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각도마다 그 명칭도 다양하게 변질되었다. 축산 기술 연구소나 보건 환경 연구원 산하 가축 위생연구부니 해서 10~20여명의 수의사가 주축이 되어 지역 사회 기관장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전공 업무보다는 행정 기능 역할을 주로 감당해야 하니 모든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가축 질병의 발생은 다양하고 많은 증례들이 그 추세가 여러 질병과 복합되어 발병되는 예가 돼지와 닭에서 아주

흔하다. 이들을 정확히 진단해서 이에 따른 방역 대책을 강구하자면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가축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분야별로 그 인원 구성이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각종 장비도 다 활용해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각 시도의 사업소 체제로 운영되기보다는 농림수산부의 직할기관이어야 하고 지역사회수외과 대학과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대학에서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담당하고, 대학원 과정의 이수를 장

려하기 위해서 정부는 배려해야 한다.

셋째, 도축장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각도에 한 개 정도로만 남게 통합하고 대규모화하여 많은 감사원이 집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위생적인 도축검사가 진행될 것이고 모든 장기의 검사가 수행될 것이다. 정상적인 도축 검사 업무란 정상적인 시설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야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개체의 혈청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나 질병 연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방역 관계 담당자가 매번 농장을 방문해서 채혈하는 오늘날의 방역 체계는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오히려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에 농장의 기피 현상은 당연하다. 질병 조사 업무가 도축장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축의 원산지외 출하 이동 과정이 명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 장치만 수반되면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명확한 역학 상황이 파악되므로써 근본적인 질병 박멸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약·품·도·매·전·문

유·내·외
약·품·도·매·전·문
위·생·전·문

정직과 신용으로 달려온 외길 40년
21세기를 고객과 함께 열어갑니다.

유동의 KNOW HOW를 가진 (주)협성가축약품이 귀사의 적정재고를 유지시켜 주며 필요한 약품과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하여 귀하의 사업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주)협성가축약품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87-31
- 본사 : 967-8779/964-4870
- 청량리영업소 : 965-9778
- FAX : 960-1894